

5월 하반기에 묵상할 수 있는 성 호세마리아의 강론을 소개합니다. "하느님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다".

마리아의 신적 모성은 그분이 받은 모든 특전과 성덕의 원천입니다. 그 신적 모성 때문에,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임태되셨고 은총이 가득하시며, 평생 동정이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으며,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과 성인

들 위에 모후의 관을 받으셨습니다.

2025-5-15

하느님 이외에 그분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.

“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에 무한한 선이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무한한 품위를 지니십니다.”

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. 우리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.

우리를 복되신 성삼위께로 이처럼 가깝게 인도하여 주신 성모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.

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셨기에, 무한한 지혜로써

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이룰 수 많은 방법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.

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.

“첫 아담이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흙에서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, 첫 아담의 상처를 치유할 마지막 아담도 거룩한 동정녀의 모태에서 몸이 형성되었습니다.

이는 범죄한 인간들의 살과 똑같은 살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.”

sogaehabnida-haneunimyi-eomeoniyo-
uriyi-eomeonida/ (2026-2-3)